

한옥에
공간이
로



사계(四季)

2022 하나고등학교 은평한옥마을지역연계 프로젝트

봄

새싹

벚꽃

여름

장마

화창한 날

가을

간풍

햇살

겨울

겨

흐린 날

#벚꽃잎 날리며



창 밖을 열면 분홍의 향이 가득,
설렘의 향기와 분위기로 집안을 채워보세요.

은평한옥마을의 벚꽃향이 창을 통해 들어오면,
봄을 맞을 준비를 해요.

#벚꽃잎 날리며

쉬폰 커튼

봄날,

선선한 핑크빛 바람을

온전히 안을 수 있는

쉬폰 커튼을 달아 보세요



화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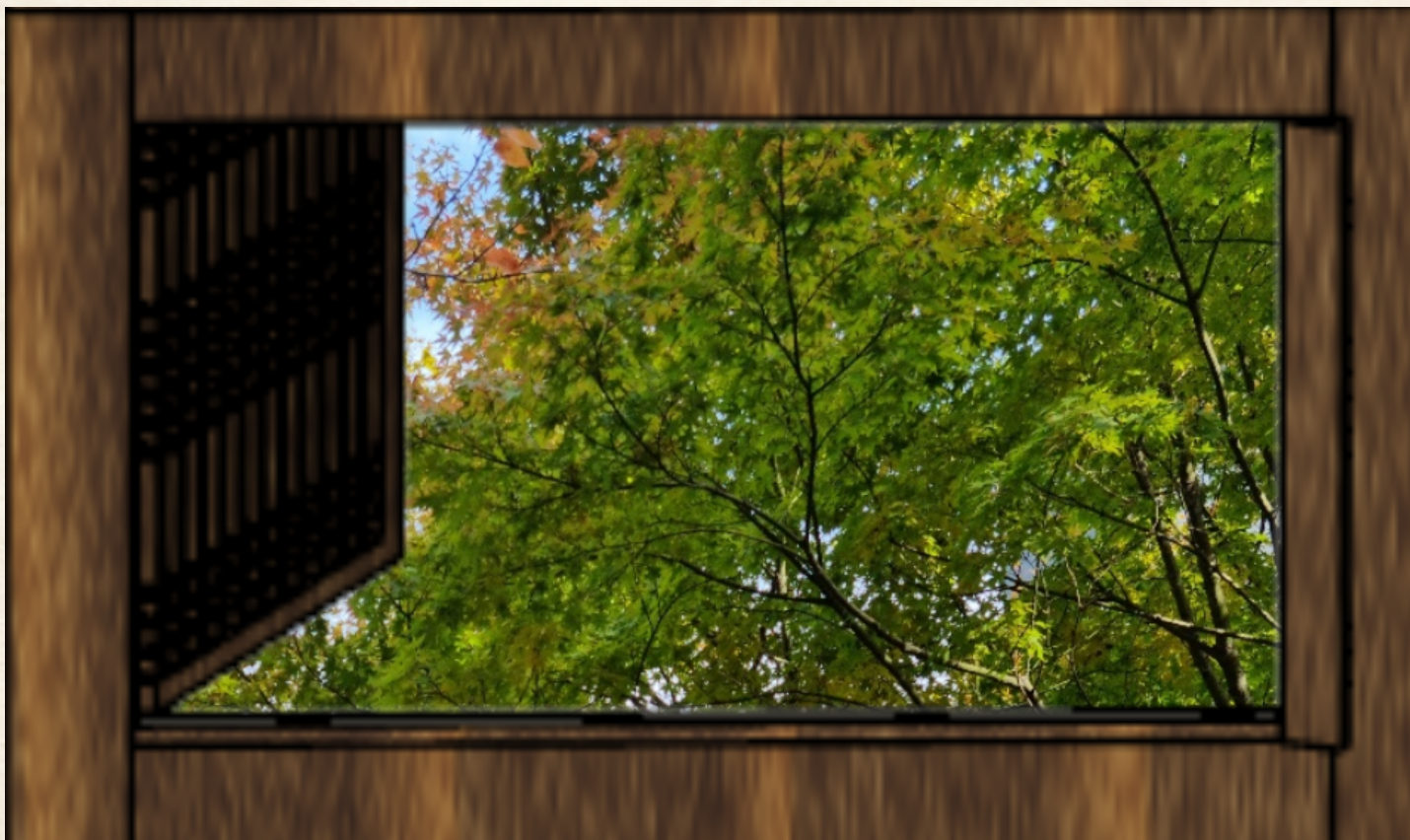
안개꽃을 창가에 두어

봄꽃이 주는 잔잔한 아름다움을

마음껏 느껴보세요.



돌아나는 푸르름



창밖으로 새순이 돌아나면,
봄의 푸르름이 창문을 두드립니다.

햇살과 함께 흘러 들어오는 봄의 기운을
창가에서 느껴봐요.

#돋아나는 푸르름



플로럴 커튼

새싹이 피기 시작할 무렵,
곧 창밖을 가득 채울 꽃들을 기대하며
밝은 플로럴 커튼을 걸어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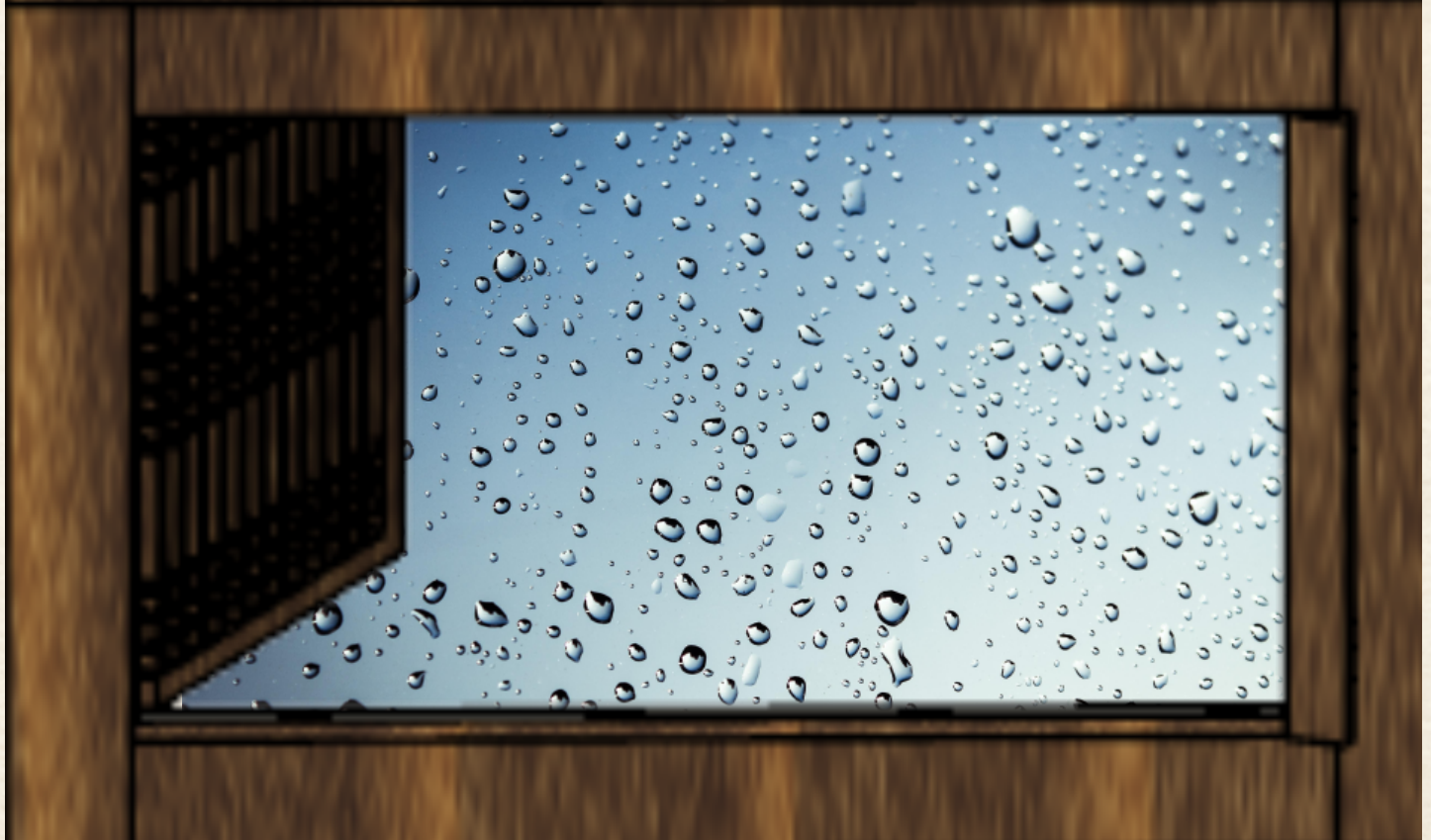
다육이 화분

창의 밖과 안에 푸르름을 두어
봄이 왔음을 느껴보세요.

색감을 느끼는 봄은
그 어느 때보다 따스할 겁니다.



#촉촉한 비 적시며



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.

비가 길어지면,
여름의 짙푸른 풀의 향기가 창을 통해 넘어옵니다.

은평한옥마을에 내려앉은 촉촉한 감성에 젖어보세요.

#여름_장마

시원한 향의 디퓨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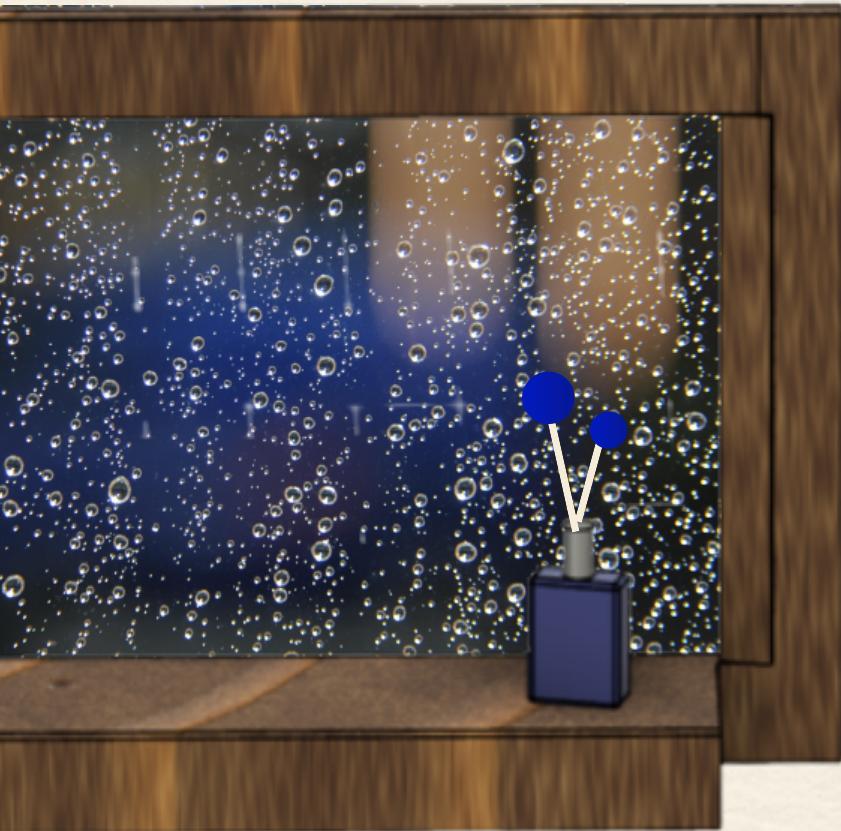
여름비와 어울리는

시원한 향기를 담은 디퓨저를

창가에 두어보세요.

비의 향기와 맞물려

거실과 방을 가득 채울 거예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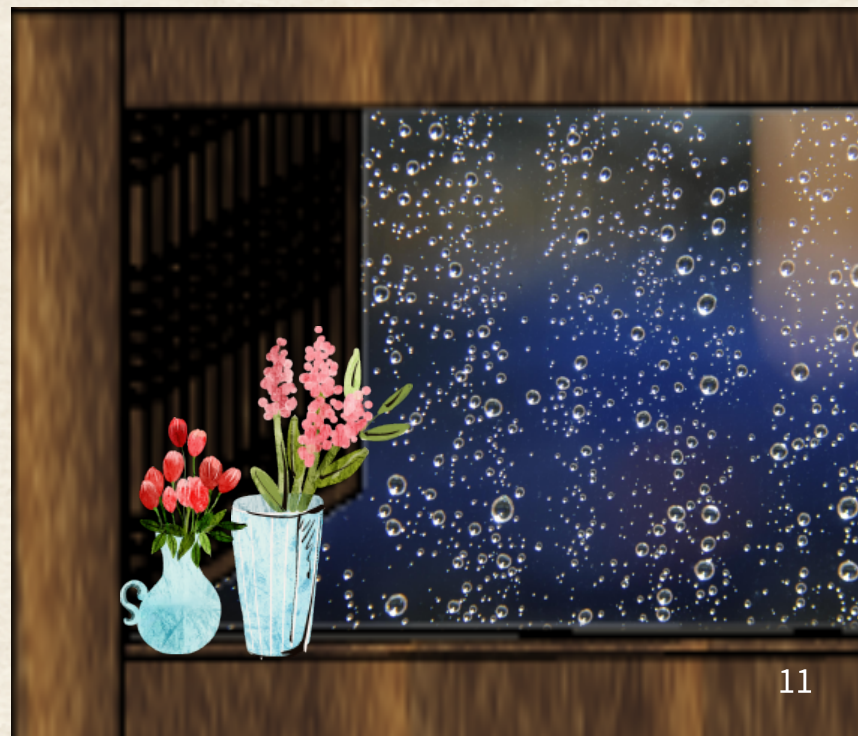
유리 화병

좋아하는 여름꽃을 꽂은

유리 화병을 두어 보는 건 어떤가요?

창 밖의 빗방울이 비추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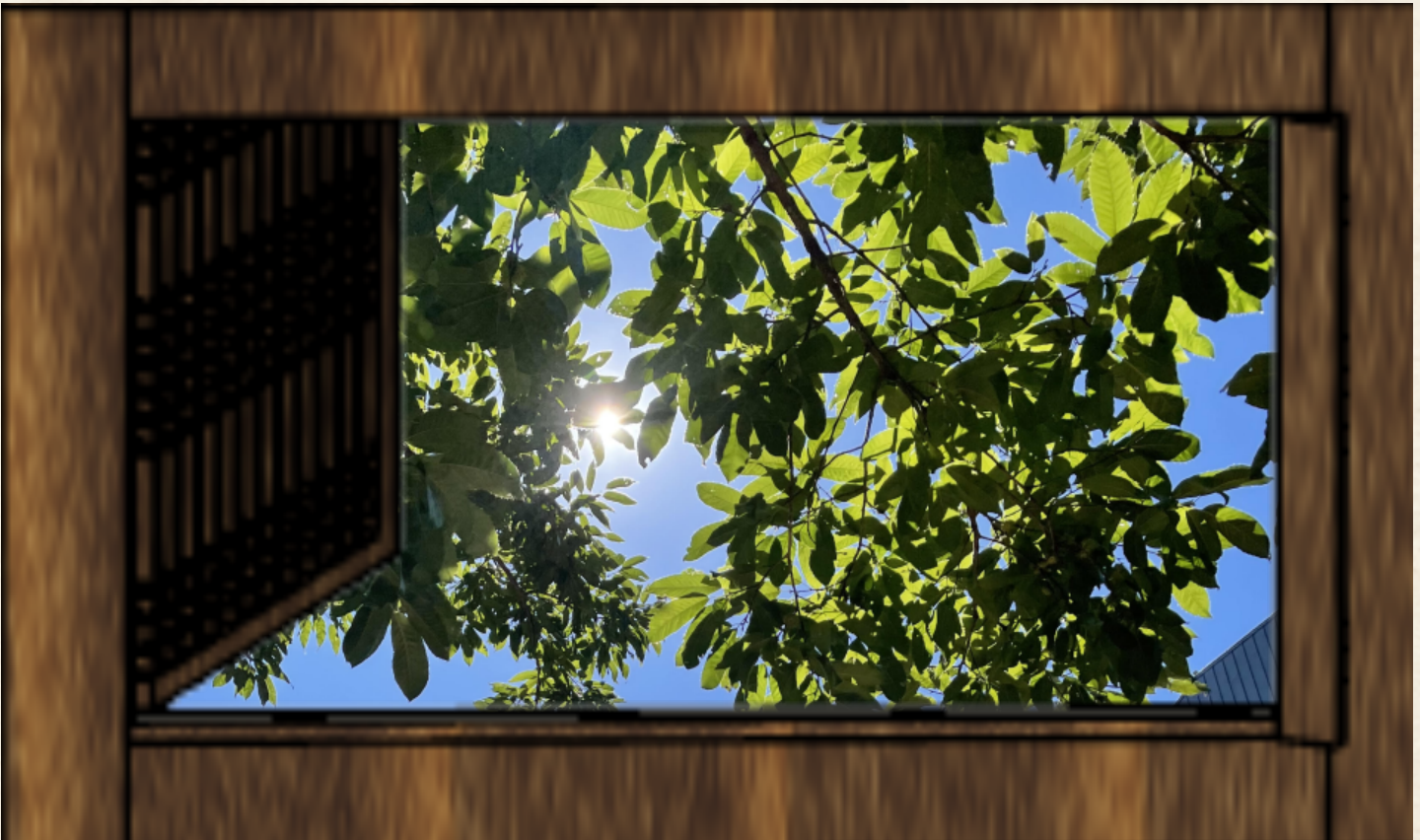
우리 집만의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.



여름

화창한 날

#여름의 청량한 햇살



따가운 햇살이 창 안으로 들어오는
어느 화창한 여름날입니다.

이런 날은 집안에도 과감한 색을 더해봅니다.

여름의 매력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.

#여름의 청량한 햇살



비비드한 색감의 그린/블루 커튼

창가에 가득 쏟아지는

여름의 싱그러움을 담아낼 수 있는

비비드한 색감의 커튼을 써보세요.

무더움 속 시원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

그린 혹은 블루 컬러를 추천드립니다.

드림캐처

여름날이 저물어갈 때 즈음,
지는 노을을 드림캐처로 통과시키며
여름날의 추억과 꿈을 간직해보세요.



#색채에 물들다



창을 열면, 계절이 선사한 작품이 펼쳐집니다.

훌륭한 작품에 나만의 감성이 더해진다면,

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가을날이 아닐까요?

#색채에 물들다

LP판 / CD

추억이 담긴 음악을 창가에도

두어보세요.

가을바람이 스칠 때마다

추억이 연주됩니다.



단풍 색깔의 커튼

제일 좋아하는 단풍색을 골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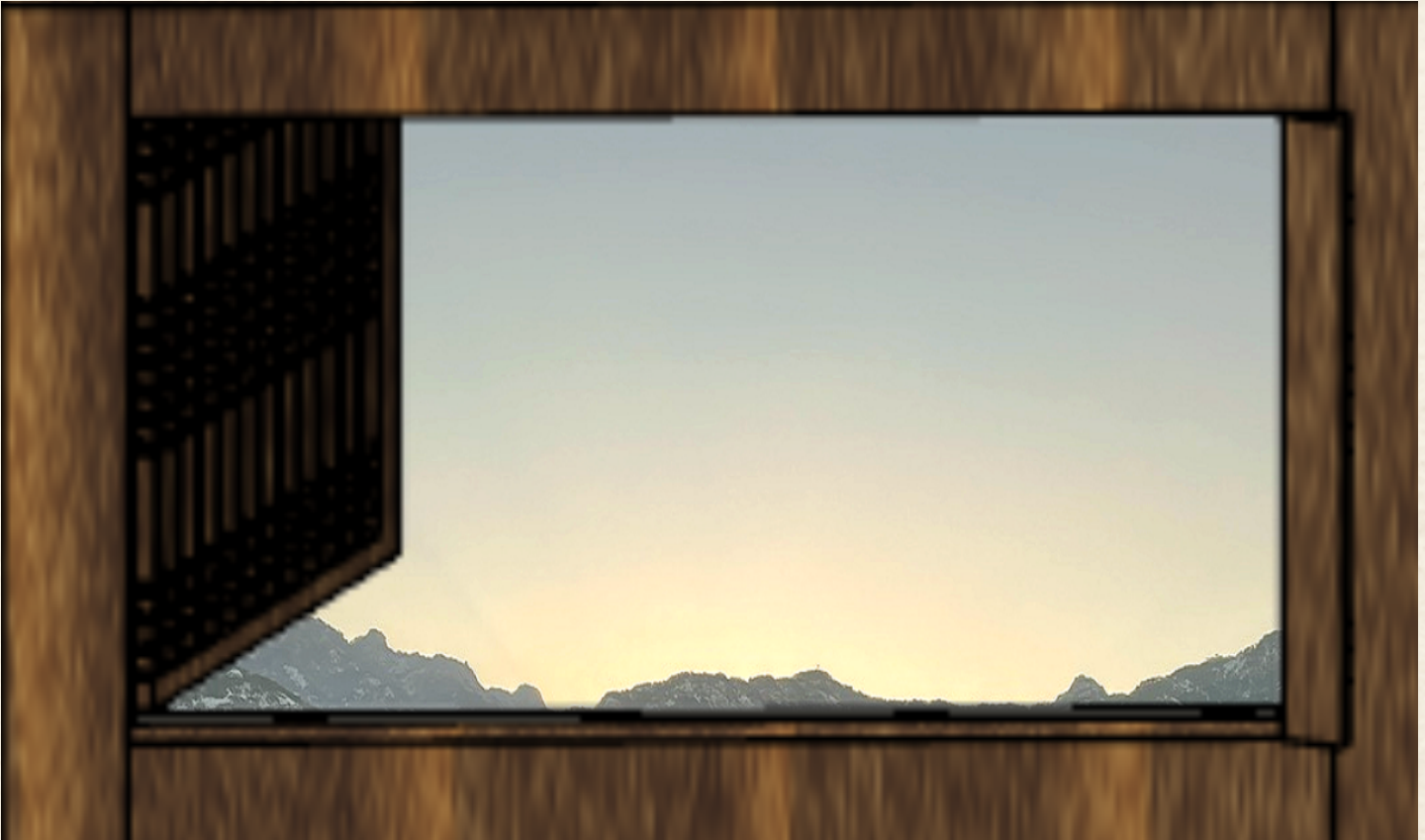
창가에도 걸어보세요.

집 안에 가을을 담아낸 듯한

느낌이 들 거예요.



#따스한 아침



가을 아침에 느낄 수 있는 청명함을

집 안에도 담아보아요.

매일매일 개운하고 기분좋은 아침을 느껴봐요.

#따스한 아침



책 & 디지털 카메라

종잇장을 넘기거나

아름다움을 프레임에 담는 일로

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.

포토 가랜드

따스한 햇살을 배경으로

지난 상반기의 추억들을

창가에 걸어두세요.

시원한 가을 바람에

실려오는 추억의 향기를

음미하세요.



겨울
눈

#내리는 그리움



겨울에 내리는 눈만큼

쓸쓸한 겨울의 감성은 깊어집니다.

집 안에는 쓸쓸한 겨울의 매력을 더합니다.

#네리는 그리움

퍼플 커튼

겨울에 내린 새하얀 눈과
톤 다운된 색을 맞추어
풍경과 집안의 조화를
이뤄보세요.



곶감

겨울의 쓸쓸한 마음을
달달하게 채워주는 곶감을
창가에 걸어두어 보세요.



겨울

흐린 날

#색이 없는 날



온 세상이 먼지가 낀 듯
뿌옇습니다.

은평한옥마을에도 비로소 겨울이
내려앉은 듯 합니다.

창가에도 잔잔한 색을 더합니다.

#겨울_흐린 날



라이트 그레이 커튼

겨울의 눈구름이 잔뜩 끼여

흐린 날에는

커튼과 하늘의 색을 맞추어

곧 내릴 눈을 기대해봐요.

귤 바구니

귤을 까고 음미하며

색이 없는 세상에

나름의 새콤한 자극을

더해 봅니다.





사계(四季)

박정수 강해솔 김시은 윤태희 남지은 장이환